



“SW산업 발전, IT 인재양성 위한  
체제 개편에 전념할 것”

글 이은정 KBS 과학전문기자 ejlee@kbs.co.kr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는 미래창조과학부 아래 전담 차관을 두어 그동안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던 정보통신기술(ICT)분야를 하나로 통합하게 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수용 신임 원장은 이 같은 시대 흐름에 맞춰 “산업 발전과 인력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Q. 우선 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3달 전에 취임하신 것으로 아는데 소감은 어떠신지요?**

A. 지난 3달이 마치 3일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국정감사를 한 달 동안 받았고, 또 11월은 한해 일을 마무리하느라 외부 행사가 많았습니다. 12월에는 다가오는 새해, 2013년을 준비하느라 또 바빴죠. 학교에 근무할 때 3년 치 일을 한꺼번에 한듯 한 기분입니다. 제가 원장을 맡아 다녀보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전담 조직으로 묶이기 때문에 진흥원이 앞으로 할 일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Q.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이 생긴다고 하여 관심이 높습니다. 정보통신을 전공한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A.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산업이 융합돼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과제죠. 그러므로 과학기술부가 단순히 부활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을 과제로 ICT 분야가 합쳐지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보통신업계에서는 ICT 전담 독립부처를 요구했지만 지금처럼 한 부처에서 두 분야가 융합되는 것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나뉘어 있던 업무를 한 자리에 모아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생긴 것은 바람직하죠. 또 우리 기관이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진흥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임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수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IT 인재양성을 위한 체계 개편 등에 전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 소프트웨어(SW), 전자거래 등 업무를 통합해 대형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3달 동안 어떤 일에 주목을 하셨는지요.**

A. 네, 2009년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등 3개 기관이 통합됐습니다.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해 약 400명 정도 규모가 되고요. 한해 예산은 4천300억 원입니다.

우리 기관은 정보통신(IT)을 통해 미래가치를 창출한다는 목적을 기본으로 해서 5개의 전략 목표를 새로 세웠습니다. IT전략기획과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정립, IT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 소프트웨어의 미래 경쟁력 확보, 정보기술융합과 지식 서비스 확산, 글로벌 수준의 경영체계 구축 등입니다.

**Q. SW 육성 의지를 밝히셨는데 현재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이신가요?**

A.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산업에서 사용하던 정책을 그대로 소프트웨어 산업에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같은 문제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청, 재하청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수 인력이 가지 않고 또 소프트웨어 업체는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죠.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창의적, 무형의 가치를 더 알아줘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식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죠. 소프트웨어의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빅 데이터나 클라우드, 공개 소프트웨어와 같은 미래 전략 소프트웨어와 유망기업을 중점 육성해야 합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개발(R&D) 추진으로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또 소프트웨어 산업을 자동차, 조선, 섬유 등에 융합해 대기업, 전문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전 세계적으로 IT 기술이 산업과 융합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죠? 진흥원이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텐데요.**

A. 그렇습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전 세계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애플사가 한 일은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이리저리 짜 맞추어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기존 모바일 폰의 강자였던 모토로라, 노키아뿐 아니라 일본의 기업들까지 몰락하면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보통신업계도 상당한 위기에 몰렸었죠.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산업에서도 혁신을 통한 융합이 늦어질 경우 이 같은 아이폰 쇼크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과거 산업에 소프트웨어적 가치를 접목시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야 합니다. IT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도 IT 융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새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육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지난 5년 동안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성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의 수출에 힘입어 IT생산은 세계 4위, 수출 5위, IT 무역수지 세계 2위 등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새 부처에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통합해 ICT 벤처 생태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젊은 인재들이 가감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출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구글 같은 회사는 직원들에게 시간의 30%를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했더니 소프트웨어 생산성이 훨씬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양성과 IT 선도 기술 연구에 투자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학교에서 학생들을 오래 가르치셨는데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교육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신다면?**

A. 우리나라 대학은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연구개발과 교육의 기능을 둘 다 수행하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잘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연구도 중간쯤, 교육도 중간쯤 하면서 어정정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로 볼 때 연구개발에 집중할 대학들은 그렇게 하고, 교육에 집중할 대학은 교육에 ‘올인’하는 것이 낫습니다. 연구 중심 대학을 정하고 나머지는 교육

중심으로 하면서 교육을 한 결과로 논문을 쓰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도 연구과제와 교육과제를 나눠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또 요즘처럼 정보통신기술이 자주 바뀌는 환경에서 교수들이 학위할 때 배운 것이 산업 환경에 뒤떨어지기도 합니다. 산업체들이 대학에서 배출한 인력을 제대로 쓸 수 없다고 불평하는 것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교수진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소프트웨어 새마음 운동'이라는 특별한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시라면서요.**

A. 네. 소프트웨어 새마음 운동은 SW 사용자와 개발자, 인력양성교육자 등 세 그룹이 새로운 마음을 갖자는 캠페인입니다. 사용자, 즉 기업이 국산 SW를 제값 주고 사자는 게 첫 번째 캠페인인데요. 초기에 우리 국산 전자제품이나 자동차가 외국 제품에 비해 품질이 좋아서 사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주고 하니 기술 개발을 할 여력이 생겼고 이에 따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거죠.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에 비해 SW는 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외산 제품과 경쟁에서 살아남은 제품은 사용하고 보완해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캠페인은 개발자, 업체는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산 제품이라고 품질과 상관없이 무조건 쓰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 등 SW업체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개발자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개발 프로세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좋은 품질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세 번째 제안은 '제대로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산업체가 원하는 인력을 만들고, 기존 산업체 근무 인력들은 재교육을 통해 역량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 그룹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국내 SW산업을 변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SW산업을 창조 경제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만큼 올해를 새로운 국가 먹거리를 만드는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ST**

